

새날을 노래하다...광주의 오월은 민주주의 축제의 장

올해도 어김없이 오월이 왔다. 45년 전 계엄군의 총칼에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떠나보냈던 광주 시민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고, 그날의 진상을 가리고 있는 안개조차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동세상을 꿈꾸던 광주 시민들의 합성은 오늘날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됐다. 5·18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뿌리가 됐으며,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길을 5월 영령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렸다. 5월 영령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 돼 세계로 5·18 정신을 전파했다.

이제는 5·18의 미래가 눈앞에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말하며 시대의 과제로서 못을 박고 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은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렸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뜻으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5·18의 의미를 이어나가고 미래를 직접 그려나갈 때다.

사진=나명주·김진수 기자



정치인 총출동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원식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지원의 원 등과 함께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전야제에 참석해 '평등·대동세상 건설'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첫 권한대행 기념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묘역 추모 인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가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다.



옛 적십자병원 개방 광주시 동구 옛 적십자병원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개방된 가운데 17일 시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내부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금남로 메운 민주평화대행진단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두고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역과 전남대, 조선대 등지에서 출발한 시민들로 이뤄진 '민주평화대행진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광주일보 5·18특별판에 쏘는 눈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가 열린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일보가 발행한 5·18 특별판을 보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 과정을 호의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하고, 5·18 45주년 하루 전인 지난 17일 5·18 특별판 2면을 만들어 국립5·18민주묘지 앞, 금남로 전야제 행사장,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앞 일대에 배포했다.